

2023년 10월 감비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선교서신

카톡: Gambiawam2684 /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010-04-06386-690 (GMS 한병희) / 미국: Wellsfargo Bank 1079234373177(Mr. Byung Hee Han)

감비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에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됐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힘든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려운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감비아는 큰 요동이 없어 불편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입양공동체

새 학기에 예정대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영입하여 28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에 등록한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생활을 즐거워하며 쉽게 적응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학업과 생활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학기에 제이콥 자타 형제를 선교부의 개인교사로 세워 학생들의 부족한 학과목을 지도하도록 공동체 교사로 세웠습니다. 이 형제 또한 브리카마 사역 중에 양육받아 성장한 형제로서 장차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함께 사역하며 장래의 영적 지도자로 사역하기 위해 계속 훈련을 받으며 사역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유치원

새 학기에 기존 어린이들을 제외한 20여명의 신입생을 맞이 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녀들을 이곳 유치원에 등록시키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각 반에 25명의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가르치려 하고 있어 현재 등록한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당한 상황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4살 미만되는 어린이들을 돌봐 주길 요청하는 이들이 있어 이들을 위한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새롭게 헌신한 프리셀라는 이전 사역지인 브리카마 공동체에서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자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매로 어린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돌보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이곳 교회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 하지만 소수의 어린이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양공동체의 어린이들이 있고 주변의 어린이들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주일학교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학년도 부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나이별 차이를 따라 네개의 반으로 나누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네명의 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양육을 받은 이들로 확신있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주일 학생들은 교회학교 뿐 아니라 성인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어 사랑스럽습니다. 전달되는 복음이 이들의 영혼에 잘 소화되어 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셉 고메즈 목사님

신학석사 과정을 위해 스코틀랜드에 간 조셉 고메즈 목사님은 잘 정착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고 기후의 차이로 불편을 경험할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감비아 복음화와 지도자가 될 이들을 양육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년의 집중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공부의 과정도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셉 목사님의 학업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건축공사

파칼린딩에서 처음으로 맞는 미국 열린문교회의 단기 의료팀을 맞이 위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오는 20명의 팀원들을 불편없이 거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금번 팀은 오랜 기간 머물지는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숙소를 지체없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이 도착하는 날까지 완성하기가 어려울 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갖추어 질 것이라 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토 카마라

지난 선교서신에서 소개했던 이 자매는 선교부의 공동체에서 떠나 가족들에게로 돌아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자매의 영적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악령으로 인해 가끔 혼란을 경험하는 자매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돌보며 기도로 양육하는 자매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할아버지가 원토에게 가끔 일어나고 있는 발작의 상태를 치료하겠다고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돌아가며 설교하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원토의 이러한 상태는 유부남에게 결혼을 시켜야 치료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15살인 아이를 친척인 유부남에게 가족적 결혼을 시켜 부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발생되기 전에 할아버지와 가족을 만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단단히 일러 주었고 가족들은 그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유부남과 결혼을 시켰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곳의 신앙인들의 비신앙적인 의식과 관습이 안타깝고, 할아버지의 제안과 강요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곁을 떠난 원토가 안타깝습니다.

폴 마네

새로이 공동체에 영입된 청소년들 중의 하나인 폴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선교부에 입양된 이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그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질문도 많고 진리를 알고자하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체적으로 하는 성경공부와 더불어 주 중에 2차례 개인 성경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공부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폴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의 질문

선교부에서 양육받고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 주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나요?” 등의 질문들을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조용한 형제들보다는 이같은 질문들을 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면서 믿음을 다져가는 형제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람이의 일반외과 의사면허 취득

가람이는 5년의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현재 펠로우(전임의)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외과 의사로서의 과정을 마치고 필기와 구두시험을 치루었고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임의가 되기 위해 내년 중순까지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의 많은 과정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가람이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건축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11월에 오는 단기 사역 팀을 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2. 의료 단기 팀의 사역을 통해 이곳 주변 마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3. 교우들과 공동체의 가족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4. 주일학교가 계속 활성화되어 어린이들이 어려서 부터 말씀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5. 감비아 장로교단 (KPC)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영적, 숫적 성장을 위하여

어느 분이 자신의 건강과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며 육신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분의 선한 일들을 위해 동역자님께 건강과 평안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드림